

2003년 하반기 시멘트 수급 전망

김재영(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경제개황

연초에 우려하였던 바와 같이 2003년 1/4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미-이라크간 전쟁과 북한 핵문제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불안해짐에 따라서 하반기 경기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제여건이 이와 같이 나빠지자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자칫 4%대의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하기 시작했다. 2/4분기에 들어서는 노동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3%대 수준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을 정도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1/4분기부터 경기하락에 대비하여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모색하고 금융시장에도 적극 개입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나 경제 각 부문의 부정적인 동향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선 우리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는 가계의 소비능력이 줄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되면서 둔화속도가 빨리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부실위험이 커지면서 그 동안 가계소비를 부추기며 빠르게 증가했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가계의 소비능력이 줄어들고 있어 소비둔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건설경기 동향

2002년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조치가 본격적으로 취하여짐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시점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으며 건설투자도 3/4분기 경에 정점을 지나서 점차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4월까지의 건축허가를 토대로 상반기 건축허가동향을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허가는 전년 동반기 대비 7.2% 감소하고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0.5% 감소하여 총 건축허가는 1.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1>)

<표-1> 2003년 상반기 건축허가 동향 (단위 1,000㎡)

구분	주거용	비주거용					총건축	
		소계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2002	1/4	13,583.7	18,015.8	11,409.7	3,507.2	1,559.4	1,539.5	31,599.5
	(증감율)	47.7%	86.8%	197.9%	-0.7%	65.2%	78.7%	67.7%
	2/4	14,684.6	23,651.4	14,749.1	4,717.5	2,054.9	2,129.9	38,336.0
	(증감율)	27.8%	134.3%	123.1%	24.5%	30.4%	53.0%	77.6%
	상반기	28,268.3	41,667.2	26,158.9	8,224.7	3,614.2	3,669.4	69,935.5
	(증감율)	36.6%	111.1%	150.5%	12.3%	43.4%	62.8%	73.0%
	3/4	11,455.9	18,816.1	11,277.5	3,548.2	1,831.5	2,158.9	30,272.0
	(증감율)	-10.7%	47.9%	62.8%	11.6%	39.6%	67.9%	18.5%
4/4	16,989.0	20,560.6	12,016.4	3,664.1	2,037.9	2,842.3	37,549.6	
(증감율)	8.7%	40.6%	41.0%	20.6%	19.7%	108.8%	24.1%	
2003	하반기	28,444.9	39,376.7	23,293.8	7,212.2	3,869.4	5,001.2	67,821.6
	(증감율)	-0.1%	44.0%	50.8%	16.0%	28.4%	88.9%	21.5%
	연간	56,713.2	81,043.9	49,452.7	15,436.9	7,483.6	8,670.6	137,757.0
	(증감율)	15.4%	72.1%	91.0%	14.0%	35.2%	76.9%	43.1%
	1/4	12,399.0	20,265.1	11,041.6	4,251.8	1,835.5	3,136.3	32,664.1
	(증감율)	-8.7%	12.5%	-3.2%	21.2%	17.7%	103.7%	3.4%
	2/4	13,820.6	21,181.9	12,230.4	4,363.8	2,205.6	2,382.2	35,002.5
(증감율)	-5.9%	-10.4%	-17.1%	-7.5%	7.3%	11.8%	-8.7%	
상반기	26,219.6	41,447.0	23,272.0	8,615.6	4,041.0	5,518.5	67,666.6	
(증감율)	-7.2%	-0.5%	-11.0%	4.8%	11.8%	50.4%	-3.2%	

주)건설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2003년 4월까지의 건축허가 실적치를 토대로 예측한 것임

총체적인 건설활동의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는 건설투자¹⁾는 주거용,

1) 건설투자는 한국은행서 건축허가, 건설수주, 건설기성 등을 토대로 매 분기 추산하고 있음. 여기에서는 이 추산치를 근거로 건설투자예측모형을 정립하여 예측하는 것임

비주거용, SOC토목용 건설투자로 구성된다. 민간 건설투자인 주거용 비 주거용은 부동산경기, 가계지출, 산업활동수준 등에 영향을 받고 SOC건설투자는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지역경제 여건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호황국면에 있고 산업활동이 활발해지면 민간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여건이 개선되면 SOC건설투자가 증가하여 건설경기가 호황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2003년에 들어서 건설투자와 관련된 부동산경기는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가계지출은 경제여건의 악화로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여 산업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경제여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3년에도 건설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건설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02년 하반기부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조치가 취해지고 재건축기준을 강화하여 재건축 시장이 냉각됨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부추기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대책으로 약 4조원의 SOC 추경예산을 하반기에 집행하면 건설경기 하강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반기에 들어서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의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증가율은 소폭 증가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전년도 동반기에 6.7% 감소하였던 토목용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추경을 집행하면 SOC투자 증가로 약 2.8%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1/4분기의 자료를 근거로 전망한 2003년도의 각 부문별 건설투자 전망은 2002년 말의 전망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건설경기의 하강속도가 다소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거용,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2>)

<표-2> 2003년 건설투자 전망

(단위:십억원(1995년불변가격), (증감율=%))

		총건설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2002	1/4	14,920.7	6,039.8	3,793.3	5,087.6
	(증감율)	9.7%	30.1%	8.5%	-6.9%
	2/4	18,601.1	5,801.9	3,751.8	9,047.4
	(증감율)	3.8%	19.7%	10.6%	-6.6%
	상반기	33,521.8	11,841.7	7,545.1	14,135.0
	(증감율)	6.3%	24.8%	9.5%	-6.7%
	3/4	18,413.6	5,680.6	3,994.7	8,738.3
	(증감율)	-4.6%	10.2%	11.4%	-17.2%
	4/4	23,277.4	6,032.8	4,490.2	12,754.4
	(증감율)	6.0%	1.7%	26.7%	2.1%
	하반기	41,691	11,713	8,485	21,493
	(증감율)	1.0%	5.7%	19.0%	-6.7%
	연간	75,213	23,555	16,030	35,628
(증감율)	3.3%	14.5%	14.4%	-6.7%	
2003	1/4	16,126.8	6,290.0	4,917.9	4,918.9
	(증감율)	8.1%	4.1%	29.6%	-3.3%
	2/4	18,875.9	5,851.8	3,841.9	9,182.2
	(증감율)	1.5%	0.9%	2.4%	1.5%
	상반기	35,002.7	12,141.9	8,759.8	14,101.0
	(증감율)	4.4%	2.5%	16.1%	-0.2%
	3/4	18,752.3	5,706.8	4,072.2	8,973.3
	(증감율)	1.8%	0.5%	1.9%	2.7%
	4/4	23,530.5	5,898.3	4,513.1	13,119.2
	(증감율)	1.1%	-2.2%	0.5%	2.9%
	하반기	42,283	11,605	8,585	22,093
	(증감율)	1.4%	-0.9%	1.2%	2.8%
	연간	77,286	23,747	17,345	36,194
(증감율)	2.8%	0.8%	8.2%	1.6%	

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3년 1/4분기까지의 건설투자를 토대로 예측한 것임

3. 시멘트수급 전망

시멘트 수요는 건설활동에 따라서 유발되어지는 수요로 보아 건설투자를 토대로 추정되어지는 예상 시멘트 소비량과 시멘트 내수량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시멘트 내수량은 실제로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출하된 물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멘트 공급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하여 건설투자를

토대로 한 시멘트 소비량에 대한 추정치는 시멘트 수요로 간주하였고 시멘트 출하량은 시멘트 공급으로 간주하여 동향을 분석하였다. 시멘트 수요를 기준으로 시멘트 공급량이 웃돌면 향후 시멘트 소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도 시멘트 공급량이 밀돌면 시멘트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시멘트 생산업체에서는 시장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시멘트 수요²⁾

시멘트 수요는 건설투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는 향후 시멘트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정부의 조치는 주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책으로 시멘트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3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주거용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증가률도 크게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멘트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부분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토목용 건설부문에서 시멘트 수요는 694만 톤으로 전년동반기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약 40만톤 전년 동반기에 비해 약 30만톤 정도 시멘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주거용 및 비 주거용 건설투자의 위축으로 상반기에 주거용 건설부문에서의 시멘트 수요는 전년 동반기 대비 약 30만톤 수준의 소폭 증가한 1,227만 톤이 수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주거용 건설부문에서는 전년 동반기 대비 약 73만톤이 증가한 528만톤이 수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위축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주거용 건설부문에서의 시멘트수요는 전년 동반기 대비 약 11만톤 감소한 1,172만톤이 수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주거용 건설부문에서는 전년동반기 대비 약 6만톤 증가한 518톤이 수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총 시멘트 수요량도 상반기에는 약 102만톤이 증가한 2,449만톤이 수요되고 하반기에는 25만톤 소폭증가에 그친 2,777만톤이 수요되어 2003

2)건설투자 10억원당 원단위 주거용 건설투자 10억원당 1.010톤, 비주거용 건설투자 10억원당 0.603톤, 토목용 건설투자 10억원당 0.492톤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서 추정하였다.

년에 수요될 시멘트는 약 13만톤이 증가한 5,225만톤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는 집계가능한 건설활동을 토대로 추정된 시멘트수요량으로 소규모 건설공사나 개·보수 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멘트를 고려하면 추정치보다 5~10%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2003년의 시멘트 수요는 토목용 건설투자의 회복세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증가세의 둔화에 따라서 수요량은 거의 전년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표-3>)

<표-3> 2003년 시멘트 수요전망

	총건설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1/4	11,740	6,354	2,966	2,420
2/4	12,745	5,912	2,317	4,517
상반기	24,485	12,266	5,282	6,936
3/4	12,635	5,765	2,456	4,414
4/4	15,133	5,959	2,721	6,453
하반기	27,768	11,724	5,177	10,867
연간	52,253	23,990	10,459	17,803

나. 시멘트 생산·출하

우리 나라의 시멘트 공급능력은 생산량과 가동율 그리고 전년도 재고율로 판단할 수 있다. 시멘트 생산능력은 '86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약10%씩 증가하여 2003년 현재 약 6,500만 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증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에도 '98년 수준인 6,500만 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생산량과 공급량은 생산능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시멘트가 생산된 2002년에 5,551만톤이었으며 2000년에는 5,126만톤, 2001년에는 5,200만톤 수준이었다. 2003년의 경우 1월에서 5월까지의 생산량은 2,397만톤이었다. 이에 대한 수출을 제외한 국내출하량은 국내생산량 대비 약 97%이며 2002년의 경우 수출물량의 증가에 대응하여 수입물량도 약간 증가하였다. 시멘트 재고량은 2003년에 114만톤 수준을 이었

고 2000년과 2001년에는 130만톤 수준이었다. 2003년에 들어서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전년도 수준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건설경기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국내 시멘트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시멘트 출하량이 평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재고량이 전년도보다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시멘트 업계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의 국내 시멘트 수요위축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표-4>

<표-4> 2003년 상반기 시멘트 생산·출하·수출·재고 현황

		생산	수입	계	국내출하	수출	계	재고
2000		51,255.1	517.9	51,773.0	48,000.1	3,945.5	51,945.6	1,296.7
2001		52,046.3	988.5	53,034.8	50,054.9	418.2	50,473.0	1,296.7
2002		55,513.8	1,189.1	56,703.0	54,291.8	2,487.7	56,779.5	1,137.3
2003	1/4분기	11,644.4	229.3	11,873.6	11,263.1	581.2	11,844.3	1,167.1
	1~5월	22,973.8	447.1	23,420.9	22,351.9	1,050.3	23,402.2	1,064.4

자료; 한국양회공업협회